지난주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했던 황정수 무주군수가 23일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와 대전 산림청을 찾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 황정수 무주군수, 중앙부처 방문

## 세종시 기획재정부-대전 산림청 찾아 국가예산 지원 요청

지난 주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했던 무주군이 23일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와 대전 산림청을 찾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예산심의 종료를 앞두고 무주군에서 신청했던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환경산림과장, 산촌소득 담당, 그리고 기획조정실 미래비전 담당 등이 동행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를 찾은 황 군수는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50억 원을 요청했으며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서는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사업비(2018~2020, 국비 20억 원 중 2018년 필요 액 3억 원)와 "중부권 표고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비(2017~2018, 국비 30억 원 중 2018년 필요 액 20억 원)" 등 23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국도건설은 태권도원 운영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3.6km 거리단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3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2018~2022년, 4차로 확장)이다.

이날 무주군이 지원을 요청한 국비 50억 원은 2018년도 사업 착수와 토지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또한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사업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해 제값 받는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적상면 북창리 일원(3,000㎡)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임산물 집하장과 선별장, 출하장시스템과 유통 장비 등을 갖출 예정이다.

군은 이날 소요 국비 20억 원 중 2018년도 필요 액 3억 원을 요청했다.

중부권 표고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은 톱밥배지의 원료인 참나무 류가 풍부하고 고품질 표고버섯 재배지로도 최적지인 무주군이 규모화 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인 사업으로 60억 원이 투입돼 2018년까지 3,300㎡ 규모에 톱밥배지생산시설과 배지배양시설, 배지 표고 재배시설을 조성하고 톱밥 제조기 등을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2018년도 필요 국비를 당초보다 10억 원 증액해 총 20억 원을 요청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농협, 대출사기예방 감사장 수상

## 한승기 계장, 신종금융사기 수법 인지 송금 막아 피해 예방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장기요) 직원이 진안경찰서 남기재 서장으로부터 대출사기 피해 예방 감사장을 수상했다.

농협 한승기 계장은 지난 11일 오후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저축은행 3곳에서 대출받은 총 1억3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 A씨에게 송금 사유와 자금출처 등을 문의하여 대출 사기임을 인지하고 송금을 막아 피해를 예방했다.

한 계장에 따르면 A고객은 고금리 대출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동료 B를 도와주려 했다고 한다.

A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중개업자에게 보내주면 B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보내주는 한편, A의 저축은행 대출을 B명의로 이전해준다는 것이 대출중개업자의 권유 내용이었던 것.

대출 사기임을 인지한 한 계장은 직접 대출중개업자와 통화하여 회사이름과 직책을 확인하고 동 회사 대표전화로 문의하니 그런 사람은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최근 신종금융사기 수법이라는 설명을 듣고 송금을 막아 피해를 예방했다.

남기재 서장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 한 계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군민들의 금융거래 안전 강화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기계파종 · 수확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이 관내 잡곡 생산 농가들의 소득증진과 생력화 재배를 위해 기계파종 및 수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4억 원)를 확보했던 군은 2016년부터(2년 간) 군비 포함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무풍과 설천면 지역에 조성한 잡곡재배단지(50ha, 30농가)에는 저온저장고와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설치하고 농자재 등도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창수 작물환경 담당은 "군에서는 농산물수입개방과 가격하락 등으로 재배 환경이 열악해진 벼 작목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조, 수수, 기장 등 잡곡 생산을 육성하고 있다"며 "올해는 가공 ·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부족한 일손과 도정 및 판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잡곡 재배 농가들의 소득기반 또한 안정적으로 다져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잡곡재배단지 조성 첫해인 지난 해 20ha 규모에서 잡곡 30톤을 생산했으며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현장에서 직거래되며 도시민들에게 무주 잡곡을 알렸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무풍면 잡곡 재배지에서 트랙터 및 관리기를 이용한 파종 시범과 체험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작업에 의존하던 잡곡 재배방식을 개선(파종과 수확, 도정작업 기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들은 "고령화·부녀화로 일손은 점점 부족하고 소득 작목 개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잡곡이 효자작목이 될 거라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 한우개량산업 미래전략 학술세미나 장수서 개최

한우개량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바람직한 개량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오는 25일 장수군에서 개최된다.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주최하고 (주)이티바이오텍이 주관하는 이번 한우개량산업 미래전략 학술세미나에는 세계최고권위의 가축유전자 개량센터인 미국 트랜스오버사의 최고 기술책임자(CTO)로 있는 홍 웨이 박사가 '미국 가축개량의 산업화에 따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인 최선호 박사의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번식효율'을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종축개량의 권위자인 이티바이오텍(주) 대표인 정연길 박사의 '한중일 가축개량의 현실과 국내 한우개량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초 · 중 · 고 학부모 교육 실시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징수) 위(Wee)센터에서는 지난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통! 통! 통! 사랑스런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부모교육은 균형심리학 이론 개발자인 남상철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화에 참여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자녀들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이 '균형대화법'은 공감대화, 방어대화, 치유대화로 나뉘는데 대화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부족하기에 치유작업까지 같이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관련 교육 실시

진안군은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미래세대인 관내 13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초등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 관련 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초등학생용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시청, 도로명주소 부여원리 및 안내시설물 교육, 도로명주소 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사회적 약자 위한 소통행정 펼쳐

##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지원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진안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8,133명으로 전 인구 비율의 31.2%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도 2,725명으로 전 인구 비율의 10.5%로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진안군은 노인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다양한 주민 만족형 교통복지정책을 시행하여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2월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전국지방자치 평가'에서 노인복지 부문 전국 2위를 차지해 노인복지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진안군은 이번에 노후된 청사에 어르신과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5,000만원(국비 4억, 군 1억5,000만원)을 들여 장애인용 승강기와 후청사 연결 통로를 설치한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 김모씨(진안읍 거주)는 "그 동안 몸이 불편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편히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런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소통행정이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희망진안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